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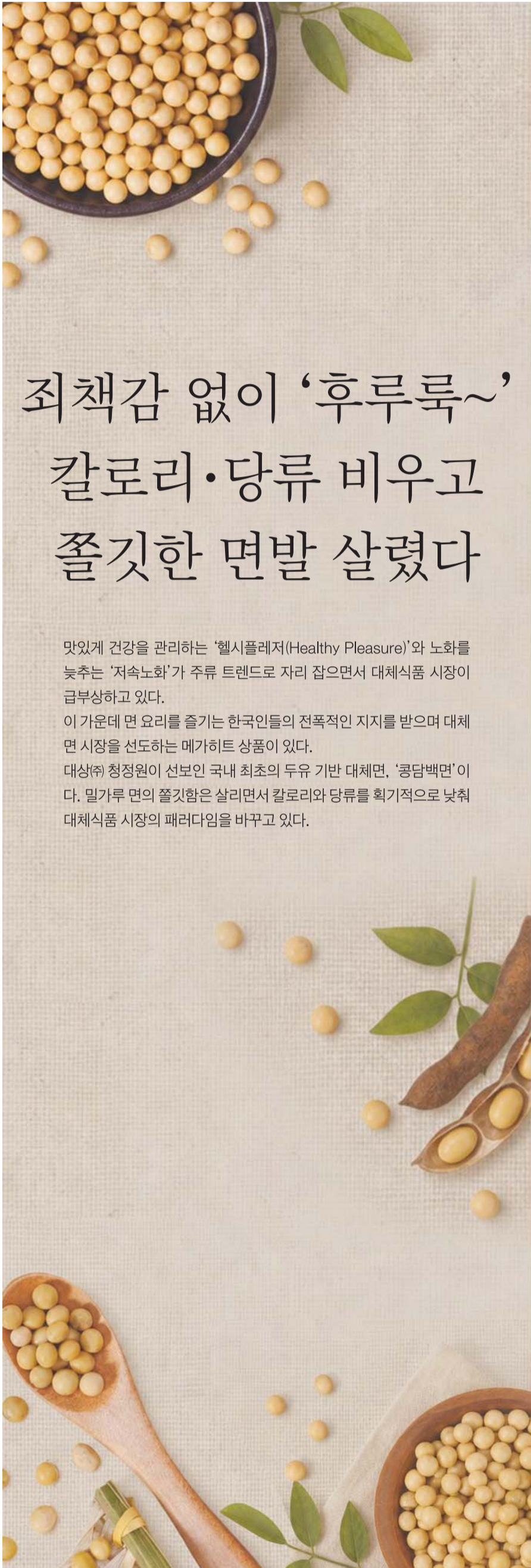


홈플러스  
희생계화안  
인가 불투명  
L1



Life

장 오가노이드 기술  
기업 이전  
재생치료제 속도



# 죄책감 없이 ‘후루룩~’ 칼로리·당류 비우고 졸깃한 면발 살렸다

맛있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와 노화를 늦추는 ‘저속노화’가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대체식품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면 요리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체면 시장을 선도하는 메가히트 상품이 있다. 대상(주) 청정원이 선보인 국내 최초의 두유 기반 대체면, ‘콩담백면’이다. 밀가루 면의 졸깃함은 살리면서 칼로리와 당류를 획기적으로 낮춰 대체식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청정원 ‘콩담백면’

◆국내 첫 ‘두유면’ 등장, 시장 판도 바뀌  
청정원 콩담백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출시됐다. 당시 기존 시장에 존재하던 두부면들은 두부를 압착해 만드는 방식 때문에 거칠고 딱딱 끊어지는 식감이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청정원은 두유 반죽을 미세 노즐에 통과시키는 독자적인 ‘압출 공법’을 적용, 일반 밀가루 면처럼 탱글하고 졸깃한 식감을 완벽히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맛과 식감, 편의성을 모두 잡은 콩담백면은 가공두부면 타입 시장에서 2021년 약 5%의 점유율로 시작해, 불과 2년 만인 2023년 1분기 기준 31%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이후 경쟁사들의 유사 제품 출시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한 두유면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했다.

### ◆‘당뇨협회’ 인정 칼로리·당류제로

2023년 대상은 가볍고 건강하게 즐기는 콩담백면이라는 슬로건 아래 맛과 패키지를 전면 개선하는 대대적인 제품 리뉴얼을 단행했다. 리뉴얼된 콩담백면 사리 한 봉지(150g)의 스펙은 파격적이다. 열량은 단 30kcal(일반 소면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당류 0%(ZERO), 글루텐 프리(Gluten-Free)를 실현했다. 여기에 엄격한 글로벌 KETO 인증(1인분 탄수화물 함량 9g 미만)까지 획득했다.

탄수화물과 당류 부담을 최소화한 덕분에 다이어터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 환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대상은 한국당뇨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콩담백면을 공식 후원하며 전문 기관의 강력한 신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요리 활용도가 높은 ‘면 사리’ 제품을 단독 출시하고 패키지 뒷면에 QR 레시피를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 ◆매출 급성장… 생산 능력 라인업 확대

내실을 다진 콩담백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9% 성장했으며, 론칭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60%에 달한다. 특히 자신만의 웰빙 레시피를 즐기는 트렌드와 맛물려 ‘사리면’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콩담백면’ 전체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을 사리면이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탄탄한 소비층을 형성하며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 7월에는 ‘황금 클로렐라’로 기존 사리면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콩담백면 골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황금 클로렐라’ 함량을 기존 사리면 대비 약 6배 높여 더

헬시플레저·저속노화 식품 트렌드에 밀가루면 대신 두유기반 대체면 선택  
두유면 시장 ‘퍼스트 무버’로 자리잡아

뚝뚝 끊기지 않는 졸깃한 식감 구현  
열량 단 30 칼로리… 소면의 ‘10분의 1’  
다이어터·당뇨환자 식단으로 큰 호응  
사리면·간편식 등 총 8종 라인업 갖춰



청정원 황금 클로렐라로 더 건강한 ‘콩담백면 골드’



청정원 콩담백면.

/청정원

욱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면발을 구현했으며, 식이섬유 함량 또한 100kcal 기준 13.3g으로 식약처 고식이섬유 제품 표시 기준까지 충족한다.

이에 대상은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 라인을 확충해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렸고, 제조 기술력 개선으로 소비기한도 2배 연장하며 유통 경쟁력을 확보했다.

현재 콩담백면은 비빔국수, 동치미국수, 매콤짜장면 등 자체 천연 대체당 ‘알룰로스’를 사용해 칼로리를 낮춘 간편식 6종을 포함해 총 8종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김지현 대상 신선식품팀장은 “청정원 ‘콩담백면’은 건강과 편의성을 모두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대체제를 넘어 최고의 식사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보적인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니즈에 맞춘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대체면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수화물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을 죄책감 없이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청정원 콩담백면의 메가히트 신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전설’ 펠레 1958년 월드컵 결승 유니폼, 경매에 나온다 /사진 뉴시스  
▲‘메시·호날두 6회 출전’…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팀 최종명단 확정

▲‘손흥민 7번·오현규 18번’…홍명보호, 월드컵 등번호 발표  
▲LA올림픽 준비하는 김은중 감독 “축구 본선 출전권 따낼 것”

▲LG, 결국 치리노스와 결별…새 외국인 투수로 우완 리오스 영입  
▲‘감다살’ 브랜드까지 등판…패션업계, 야구장 물린 MZ 여성팬 잡는다